

대학생들의 사랑이야기

- 째세대, 신세대의 연애편점 -

이 혜 성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공통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대학입학을 목표로 모든 관심과 욕구를 접고 오로지 대학입시에만 매달려 온 우리의 대학생들에게는 특이나 흥미로운 주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청년기동안 경험하는 이성과의 데이트는 성인기에 낭만적 관계를 맺고 배우자 선택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성숙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준비단계에 속한다. 심리학자로 개인의 정체감 발달에 대하여 연구한 Erikson(1968)은 청년기 동안의 낭만적 경험이 정체성과 친밀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성격이론을 제시한 Sullivan 역시 이성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청년 중기와 후기의 주된 발달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대학생들이 특히 사랑이나 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경험적으로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성교제가 그들의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들의 주 고민을 들어보면 "나는 그 여자(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왜 여자(남자) 친구가 없을

까?" 등이다. 대학 4년 동안 이성과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여성적인 혹은 남성적인 매력에 대하여 걱정을 하곤 한다. 예전에도 대학생들은 사랑과 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대학생들의 사랑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분명 신세대 대학생들의 사랑은 이전의 기존세대인 475세대(40대, 70학번, 50년대 출생)나 386(30대, 80학번, '60년대 출생)세대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60~'70년대에 비해 우리 사회는 많은 서구화의 물결과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고도로 발전하고 복잡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랑과 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경향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신세대 대학생들의 사랑과 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성과의 만남은 즐거운 오락이다

"너는 내꺼야. 째했어."

내맘을 고백해 볼까 그녀 날 이해해 줄까
놀란 그녀 나를 보며 귀엽다 말하겠지

오 제발 꿈처럼 내사랑 받아준다면
 난 누구보다 더 괜찮은 너의 남자 돼줄게
 몇번이라도 나 부딪칠거야...
 그 무엇도 사랑보다 큰 힘은 없었네니
 언젠가 그녀 내사랑 알게 된다면 나 약속할게
 그대만의 멋진 사랑된다고.
 (신세대 가수팀 O2R의 "쩜"이라는 노래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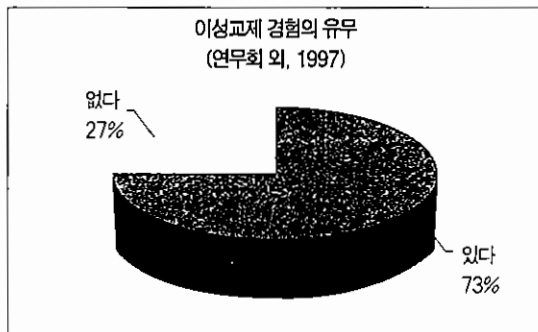
위의 가사는 신세대 가수팀이 부른 노래 "쩜"('쩜'이란 용어는 먼저 선택하였다 혹은 내것이다를 의미하는 신세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속어이다)의 일부이다. 요즘 모 TV의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언에 소질없는' 남자 대학생들이 출연하여 '괜찮은' 여자 대학생과 성사될 때 까지 만나게 해주는 이른바 서바이벌 미팅 프로그램이 인기있다. 이처럼 신세대 대학생들은 TV나 각종 매체에 출연해 당당히 사랑을 고백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쩜'한 사람을 찾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수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첫 프로포즈를 즐기기도 한다. 심지어 한번 만난 이성에게 즉석으로 구혼하는 '결혼할까요' 코너도 생겨났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태백산맥을 넘어 무려 112km를 달려간 뒤 영문도 모르고 나온 여성에게 숨을

헐떡이며 사랑을 고백한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확실히 요즘의 대학생들은 카메라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으며, 은밀히 이루어져야 할 이성과의 데이트를 거라짐없이 드러내는 대담성이 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이려는 욕구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여자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찾아 자신이 '쩜'했다는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들을 미루어 보면 신세대 대학생들은 남녀간의 만남을 하나의 레크리에이션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성교제에 있어서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성과의 데이트를 하나의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기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이성간의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단계로 여겼던 '60년대와 비교하면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1960년 이효재의 연구에서는 약혼 전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전제로 하며 성관계가 없는 이성교제에 대해서만 찬성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박인덕(1973)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이성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손승녕의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제기간이 길고 데이트의 횟수가 잦을수록 결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이들의 이성교제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연구결과들(고순자, 1981; 고정자, 1983)에서는 연애와 결혼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들이 증가하여 결혼전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이전에 비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이성교제의 동기로 대부분 사회적 적응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또는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2.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90년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아직 결혼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생들의 이성교제는 확실히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한 대학의 조사(연무희 등, 1997)에서는 이성을 실제로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3.2%의 학생들이 예라고 응답을 하였고 다른 대학(류진혜 등, 1995)의 연구에서는 79.5%의 학생들이 현재 이성을 사귀고 있거나 과거에 이성을 사귄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대체로 다른 연구결과들에서도 70% 이상이 과거에 이성을 사귀거나 현재 사귀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성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가 자연스러운 현상인 만큼 만남의 방식도 다양하다. 캠퍼스 내의 교제(일명 CC : campus couple)와 단순하게 남녀의 수를 맞추어서 만남을 주선하는 단순 미팅은 이미 오래 전 전설에 가까운 것 같다. 시원한 야외에서 하는 야팅, 유람선 등지를 이용하는 배팅, 전철이나 기차안에서 이뤄지는 전팅, 스포츠를 관람하며 하는 그라운드팅, 다른 과끼리 선을 맞거나 축제 때를 노리는 캠퍼스팅, 뭐하나 꼬투리 잡아 상대의 본거지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얼굴철판형 당일치기팅, 여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으며 남학생들을 비참하게 자판기 매뉴처럼

전략시키는 엘리베이터팅, 고의로 남자의 수를 늘려 한 명을 비참하게 만드는 피보기팅 등 그 종류도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에다가 미팅과 연관된 은어들도 매우 많은데 양쪽을 통털어 최고의 절정의 수준을 말하는 보기 드문카, 가장 멋지다는 보드카, 에이스카, 그 아래에 킹카, 외모와 함께 인간성에 중점을 두는 마이카, 그냥 수수하게 생겨서 데리고 다닐만하다고 판단하는 물카, '후지다'란 감탄을 하게 되는 기본 평균에서 오르락 내리락 되는 후지카, 그외에 조포카, 아폴로카(하도 외모가 출중하여 지구에서 우주로 쫓아버렸다는 사람), 스카이라프카(그 환상적인 외모는 우주에서조차 용납이 못 될 만큼 생겨서 다시 지구로 떨어져 버린다는 사람) 등 대학생들의 유머감각과 관심을 잘 알 수가 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결혼에 대한 관심도 많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앞의 연구에서 보면 결혼을 꼭 하겠다는 학생들은 4% 정도이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약 70%정도이다. 가능하면 혼자 살겠다는 학생들도 5.4%정도 있어 연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결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혹은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결혼상대자에게 바라는 속성으로는 '원만한 성격', '능력'과 '집안 분위기', '매력적인 외모'의 순이었다. 특히 결혼에 대하여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변화로 보이는데, 최근의 연구(김상희, 1999)에서는 '결혼은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나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다소 많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결혼을 안해도 행복하고, 혼자가 좋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능력있는 여성들의 만혼과 독신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선택기준으로 성격과 사랑을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3. 사랑도 A학점

신세대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와 사랑은 공개적이며 적극적이다. 이들은 이성교제에 대하여서도 이전의 세대들 처럼 숨기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어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연문희 등, 1997; 류진혜 등, 1995)에 따르면 자신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0.7%~60%에 달하였고 남학생(53.8%)보다는 여학생(66.3%)이 알리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N세대(network세대 혹은 net generation세대)라고 불릴 만큼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사랑이야기를 홈페이지로 작성하고 그 연애 이야기와 후일담, 그리고 사진도 올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어디를 함께 다녔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 자신의 연애과정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그 추억을 함께 공유하려 한다. 아마도 자신의 연애편지를 아주 소중히 그리고 깊숙하게 간직하고 은밀하게 자신의 추억을 즐기고 기억하려고 했던 이들의 부모세대와는 무척 다른 세대의 경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98년 2월 15일입니다.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날 사람들이었나봐요. 우리는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우선 제 친구와 건대입구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이 친구가 그 날도 역시 늦더라고요. 어쨌든 전 벤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 앞의 지하철 타는 곳에 눈길이가 한 여성이 서있더군요. '정말 괜찮구나' 하고 생각했죠. 잠시후 그 여성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전 친구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친구를 만나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숍에 아까 그녀가 홀로 앉아 있더군요. 순간 좀 놀랐죠. 그런데 더욱 놀란 건 친구가 그 쪽으로 가더니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바로 아까 그녀가 저의 오늘 소개팅 상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도 놀라더군요. 자기도 아까 날 보았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하...어쨌든 우린 이렇게 시작했지요. 우린 그걸 운명이라 믿었죠.

누가 그러더군요.

그녀에게 미련을 보이는 건 서로에게 힘들뿐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너는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제가 그녀를 만났던 시간은 그렇게 짧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은 되었으니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 그 사랑을 들어서 감히 영원이라는 말로써 감싸 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에 빠졌을 때라는 것도... 나에게 사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감히 사랑했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길...

(<http://myhome.shinbiro.com/~BoHyun80>)중에서

그리고 대학생들은 사랑에서도 'A학점'을 따고 싶어 한다. 이들이 즐기는 PC통신과 인터넷에서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전 세대 대학생들의 사랑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이들은 사랑에서도 A학점을 따기 위해 노력한다. 앞선 연구에서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경우 대다수의 이유가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한다.' 혹은 '수줍어한다.' '이성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모르겠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등으로 대부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이기 보다는 방법적인 면에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사랑에 있어서도 방법적인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알고 싶은 성(性), 아름다운 성(性)

얼마전 모 TV 프로그램에서 '아우성'이라는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진 만큼 성문제도 개방되었고, 이전의 풍토와는 다른 성의 가치와 기준이 관심사가 된다. 이제는 성문제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해서도 법률이 제정되고 있을 만큼 숨기는 성보다는 자유롭고 건강한 성의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생들의 사랑과 관련하여 반드시 얘기되어야 하는 부분도 성(性)일 것이다. 얼마전 모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첫 키스'의 평균 나이는 남녀 모두 19.7세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경향신문, '99.6.7). 구체적으로는 10대 후반이 17.1세, 20대 초반은 19.2세, 20대 후반은 20.9세, 30대 초반은 21.4세로 연령이 높을수록 첫 키스의 나이가 올라갔다. 한편 '첫 경험'의 나이는 21.2세였다. '첫 키스'와 마찬가지로 남녀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10대 후반의 경험자 비율은 20.2%. 그리고 20~24세 사이에서는 절반 정도가 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학생들의 성의식은 어느정도 일까?

최근의 연구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1995년 연구(류진혜 외, 1995)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사랑이나 결혼의 전제하에 혼전 성관계 허용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이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가장 많은 수의 남학생들은 사랑을 전제로 한 혼전 성관계를 지지한 반면 가장 많은 수의 여학생들은 절대적인 혼전 순결을 주장하였다. 전반적으

로 군복무를 마친 남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남학생들에 비해 혼전 순결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성과 성관계를 맺은 학생들은 12.8%였으며, 주로 키스(29.5%)와 손잡기(25.2%)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17.6%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적인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이성과의 키스 등의 신체적 애무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60.2%가 있다고 응답하여 이성과의 교제시 상당수가 신체적인 접촉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도 연구(연문희 등, 1997)에서는 사귀고 있는 이성과 성경험이 있는 사람은 27.9%로 1/3정도였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가 75.8%, 해서는 안 된다가 24.2%로 전반적으로 사랑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음 성관계를 가진 시기는 20~22세가 56.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책임있는 마음 가짐이 요구되는 피임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과 관련된 경험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성교육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류진혜 등, 1995)는 응답으로 미루어 보아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 지식과 성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성에 대한 정기적인 특별강좌의 실시'와 '대학의 정규 교양과목으로 성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 '학교 상담소에서 전문적 교육과 상담활동을 실시해 줄 것' 등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신세대 대학생들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확실히 신세대 대학생들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공개적이며 자유롭다. 이성과의 만남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고 이들 만남을 통하여 자신

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 이성과의 만남 그자체보다 만남에서 충실하려고 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노력하려는 모습들은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 이러한 모습들이 성인이 된 기성세대들의 시각에서 보면 요란하고 천박하게 드러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도 낭만적이고 진실되기를 원하는 것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지금의 기성세대들도 그 이전의 기성세대들에게는 신세대였을 것이고, 그 당시 사랑의 방식과 연애소문은 훨씬 더 많은 파장을 거쳤을 것이다. 이미 신세대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신세대 대학생들의 문화와 욕구를 이해하면서 좀더 건강한 이성교제와 사랑이 싹트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걸음씩 단계적으로 걸음마를 배웠듯이 사랑에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현**

〈참고문헌〉

김상희(1999), "공주대학생의 성과 사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공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은영(1995), "한림대학생의 성의식과 태도,"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박인덕(1973),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류진혜, 강재연, 김재환(1995), "대학생의 성에 대한 실태조사," 『대학생활연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손승녕(1978), "미혼 여성의 결혼에 관련된 예기적사회화 연구," 『연대사회학』, 연대 사회과학연구소
 연운희, 이정운, 이은경(1997), "연세대학교 재학생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연구," 『연세상담연구』,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조희진, 정해은(1997), "오산전문대학생의 배우자 선택 및 성태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오산전문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최윤미 외(1998), 『현대 청년심리학』, 학문사

이혜성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Fitchburg State College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 카운슬러협회 이사, 대학 카운슬러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 청소년 상담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학교에서의 집단상담", "카운슬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외에 40여 편이 있으며, 역서로는 『원전한 카운슬러』, 『존재의 심리학』, 『다섯 명의 치료자와 한 명의 내담자』, 『여성상담』, 『사랑하자, 그러므로 사랑하자』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다.